

LG MMA, PMMA 4만톤 증설 완료

총 500억원 투입 No.2 플랜트 완공 ... 총 생산능력 9만톤으로 확대

LG MMA는 LCD 도광판 및 인조대리석 소재 등으로 사용되는 PMMA(Polymethyl Methacrylate)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No.2 4만톤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고 9월8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.

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의 No.2 PMMA 플랜트 건설에는 총 500억원이 투입됐으며 LG MMA는 증설에 따라 총 9만톤의 PMMA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.

LG MMA는 PMMA 증설로 10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PMMA의 국내수요는 7만톤 수준에 이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9/09>